

정례브리핑

2021.9.27.(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독일통일 3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지역의 지지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벨기에와 스웨덴 그리고 독일을 방문합니다.

공식 일정 첫날인 9월 30일에는 벨기에에서 주타 우필라이넨 그리고 야넷 레나르치지 유럽연합 집행위원과 만나고, EU의회 외교위원회와 한반도관계대표단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EU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에는 스웨덴을 방문하여 안 린데 외교장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스웨덴 정부의 한반도 문제 담당 인사들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남북 및 북미관계 재개를 위한 스웨덴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에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방문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특강하고, 현지 교민들과 만나는 자리도 갖습니다.

10월 3일은 독일 통일기념일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독일 작센안할트주에서 개최되는 독일통일 3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기념식을 주관하는 독일연방 상·하원 의장의 공식초청을 받아 유일한 고위급 외국정부 사절로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독일통일의날 기념행사에는 매년 통일부 장관 또는 차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해왔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인사 참석 없이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4일에는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정부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통일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을 등을 나누게 됩니다.

이외의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번 주 통일부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 강원도 철원군 노동당사 특설무대에서 통일부와 강원도 철원군이 공동으로 '2021년 통일로가요' 결선 경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결선 경연에서는 1차 예심과 2차 실연 평가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12개 팀 중 7개 팀을 최종 선발합니다.

특히 이번 결선 진출 팀에는 레이지본, 임주리 등 기성가수들도 포함되었으며, 박기영, 나태주, 백지영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Uni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송범두 천도교 교령을 예방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일정입니다.

이어서 장관은 9월 29일 수요일에는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남북어울림축제'에서 영상으로 축하하고, 다음날 9월 30일 목요일에는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등이 주최하는 '제2회 고양평화의료포럼'에서 영상으로 축하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축하 등은 준비되는 대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6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남북 간 연락통신선 개시통화에 북측이 호응하였는지요?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우리 측은 오늘 오전 9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9월 24일, 25일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담화를 냈지만, 오늘

연락사무소 통화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김여정 부부장의 잇단 담화 발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습니다.

북한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여러 현안들을 협의·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는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 정말로 관계회복 의지가 있다면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답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여러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먼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앞으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되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제기된 제반문제들에 대해서도 발전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해 나와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러한 제반문제 등을 협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통일부는 9월 25일 김여정 담화 이후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이 우선되고, 당국 대화 후 여러 현안들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남북 협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남북 간에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이미 합

의한 사항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에서 시급하게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의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태도,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의제의 우선순위, 협의방향 등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과 이러한 모든 현안들을 차근차근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 28일은 북한이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예정일인데, 관련 동향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답변> 북한은 지난 8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를 9월 28일에 소집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집 통보를 공개한 이후에 현재까지 공식매체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추가로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